



쟁  
점  
토  
론

학부제 유지되어야 하나?

# 학부제 시행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윤 평 현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9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부제는 현재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 의한 전공 학과 선택권 보장은 실질적인 허구임이 드러났다. 학부제가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학과별 모집 단위로 환원되어야 하며 학문 분야의 성격과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대학에서 학부제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각 대학이 스스로 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I . 들어가는 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학부제 폐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대로 학부제 고수'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2007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통해 "광역의 모집 단위를 학과로 전면 복귀하는 것은 불허하되,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부분 허용을 검토하겠다."며 국립대학교의 '모집 단위 광역화' 정책 유지 입장과 함께, 현재 학과제로 전환해야 하는 국립대학이 많지 않다는 점,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조건하에 학부제 역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에서는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학부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면서 학과 단위로 대학 신입생 모집 단위를 환원해 줄 것을 교육 정책 관련 당국자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서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당시 김진표 교육부 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부제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모집 단위를 학과 중심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학부제를 통한 대학 개혁 정책이 지속된다면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 학문은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대학 운영과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구성원들 간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만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 Ⅱ. 학부제 시행상의 문제점과 폐해

교육부는 1995년 5·31 교육 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 1998년 3월 대통령령으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어 199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 당시 학부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으며, 인접 학문이나 타학문을 습득하는 데에 큰 장벽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전공 선택에 앞서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을 습득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학부제의 장점으로 내세웠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기능 다전공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에 부합하기 위해서 학문 영역을 통합하고, 새로운 학문 영역의 대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강점으로 내세웠는가 하면, 좁은 분야의 지식보다는 폭 넓은 적응력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구와 국가의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유능한 인적 자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동의할 만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학부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은 학부제가 시행되고,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문제

점의 수준이 아닌 극심한 폐해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제 시행 초기부터 드러난 문제점은 전국의 많은 대학들의 모집 단위 변경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집 단위 변동 현황과 관련된 최근의 자료를 보면, 전국 129개 4년제 대학 중 51.2%인 66개 대학이 1999년 이후 광역 단위 모집에서 학과제로 분리 변경하고 있다. 또한, 학과제로 전환하기 전 모집 단위는 347개였지만, 이후에는 855개의 학과로 세분화되었다. 시행 기간별로 보면, 모집 단위가 변경된 곳의 학부제 시행 기간은 평균 4.25년이었으며, 이 가운데 7개 모집 단위는 시행한 지 1년 만에 다시 학과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모집 단위를 바꾼 곳은 23곳에 달했다.

이와 같이 학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정착할 수 없었던 것은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의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많은 대학이 성급하게 학부제 도입에 나섰던 것이 사실인데, 그 배경에 교육부의 직·간접적인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필요한 경우 학과별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학부제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학부제 도입 여부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특히 재정적으로 지원의 폭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들에게 학부제 도입은 강제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많은 대학에 학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학마다 학부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학 안팎에서 학부제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2001년에는 전국 대학 교수 1,457명이 “기초 학문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면서 모집 단위 광역화와 학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200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부제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부제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물론이며, 학부제 실시에 따른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부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학 구성원들은 이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문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학부제는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학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폐해에 대하여 몇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한다.

### 1. 대학 생활의 혼란과 성적 부담 가중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혼란과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많은 대학 신입생들이 낮은 대학 환경 속에서 1학년을 보낸 뒤 정신적 이완과 혼란을 겪으면서 2학년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전공 분야 집중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제로 인해 전공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실질 기간은 20~25% 줄어들었으며, 전공은 대학원에 진학해 배우도록 유도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입학 시부터 전공 학과 중심으로 선발해 4년간 전공을

열심히 수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학부제로 인해 심화 과정 학습의 위축은 물론이거니와 전문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가져와, 결국에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학생의 희망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학생의 전공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 1학년 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게는 1학년 기간이 대학 입시 기간의 연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학업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학과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1년 동안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휴학이나 자퇴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생회 활동은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수련의 과정이지만, 가장 왕성하게 참여해야 할 시기인 1학년 때 자신의 소속 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2. 교수들의 지도 의욕 감소와 학과 폐쇄 위기 감 조성

학부제는 교수들의 학생 지도 의욕을 감소시키고 학과 폐쇄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교수는 대개 매년 신입학에 자신의 학과로 입학한 신입생에 대하여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맞이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고, 4년 동안 그들을 책임지고 교육시켜 나가고 싶어 한다. 지원 학과를 스스로 선택하고 선발 과정을 거쳐 입학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기와 의욕이 높기 때문에 학과 교수도 더 큰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다. 그런데 학부제로 인해 1학년 학생들의 소속이 불분명하여 이러한 지도 의욕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학생에게 선택되지 않은 전공 학문 분야는 강의가 줄고 급기야는 학과 폐쇄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체로 학생들은 전공 분야를 정할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학문보다는 취업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기초 학문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불문가지의 현실이다.

또한 해가 갈수록 학과의 자구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과와 해당 전공이 생존을 위해 독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제가 오히려 학과의 독자 생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부제 도입의 취지 중의 하나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공과 학과 중심의 대학 교육이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몰리는 등 학생들의 전공 편중 현상이 심해 비인기 학과는 자구 노력과 관계없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것이다. 또한, 학문 상호 간의 유사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전공들이 하나의 학부로 묶이고, 기초 학문과 실용 학문이 무분별하게 통합됨으로써 학문의 정체성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 3.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 심화

학부제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수에게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한다.

대다수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참조하기보다는 당장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공 적성의 탐색 기간을 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당초의 취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실익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많아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수 대다수가 원치 않는 학부제를 계속 실시하는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 Ⅲ. 나가는 말

현재 학부제를 시행함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대단히 많다. 학부제로 인한 기존 교수 인력의 재배치, 학부제로 야기될 수 있는 학문 발전의 불균형, 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권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학생 수와 필요 교수 수의 불균형, 일시적으로 선택이 편중된 전공 분야에 대한 교수의 충원과 그 이후의 문제, 특정 분야의 과잉 배출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급변하는 세계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인력 수요에 국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학부제가 내세우는 학생들에 의한 전공 학과 선택권 보장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라는 것이 이미 자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모든 대학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학생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10년도 지나지 않아 학부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학부제가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학과별 모집 단위로 환원되어야 한다. 모집 단위를 자율화하여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는 학부제가 적합한 전공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과거와 같이 학과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좋은 전공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학문 분야의 성격과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대학에서 학부제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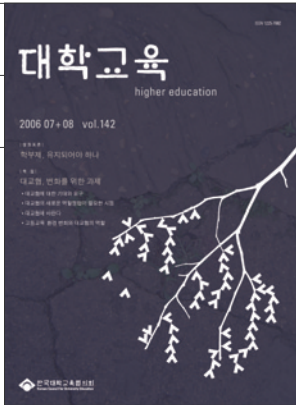
말 그대로 학부제 시행은 대학의 자율에 맡

겨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대학이 스스로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박정호**

**윤평현**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인문학특성화 사업 평가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국어국문학) 평가위원장,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원장 겸 호남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훈불」의 언어 세계』, 『국어학의 이해』, 『의미론연구의 새 방향』 등이 있다.

투·고·안·내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수필 형식의 글,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대학교육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보  
내  
실  
곳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지원부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3-3645  
전자 우편 : infor@kcue.or.kr